

“혹시 내 차에도 물 섞인 기름이...”

광주·전남 주유소 27곳서 ‘품질 부적합’ 적발...운전자들 불안

유사석유 제조 판매·구입도 급증

휘발유와 경유값이 1ℓ 당 1천600원과 1천400원대까지 오르면서 약체족들이 늘고 있다. 일부 주유소는 ‘물’ 등이 섞인 저질 기름을 판매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와 구매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암체’ 주유소도 나타나=회사원이 이모(40·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는 최근 광주시 서구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 34ℓ를 넣었다. 이씨는 산지 1년도 안 된 스포티지가 40km 이상 속도를 못 내고 엔진소리가 심하게 나자 다음날 정비업체를 찾았다. 확인 결과 차에 주유한 경유에는 물이 절반이나 섞여 있었다.

해당 주유소 측은 “저장탱크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 때문에 결로(結露) 현상이 발생해 이슬이 맺힐 수 있지만, 수시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물이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여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조금씩 쌓였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유소 측은 이씨에게 자동차 수리비 등 300만원을 보상했다.

광주시 소비생활센터에는 이씨 외에도 물이 섞인 기름 때문에 차가 고장 났다는 상담이 2건 접수됐다. 전국적으로 물로 인한 고장을 겪은 운전자는 2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호남지사는 올 들어 10월 말 현재 주유소 등 27곳(광주 7곳·전남 20곳)에서 47건의 품질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유형은 ▲물이 섞였거나 알 수 없는 이유 등으로 품질이 떨어져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8건(경유 15건·난방용 석유류 3건) ▲휘발유에 벤젠 등의 용제를 섞거나 경유에 값이 싼 등유를 섞어 파는 유사제품 29건 등이다.

◇유사석유 제조·판매·사용자도 증가=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유사석유 2만2천ℓ를 만들어 판매한 제조업자 송모(43)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화순군 농공단지에 폐인트 희석제 공장인 것처럼 위장해 저장탱크 8기·자동펌프·호스 등을 갖추고 불투연과 솔벤트 등을 섞어 유사석유 2만2천ℓ를 제조·판매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올 현재 길거리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67곳(광주 38곳·전남 29곳)과 건설현장 등 대형 사용

처 15곳(광주 1곳·전남 14곳)을 각각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중 3곳에 3천만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7곳은 사업정지(45일 미만), 품질이 떨어지는 석유류를 취급한 9곳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지난 7월 말부터 유사석유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에 따라 적발된 사용자는 11명(광주 7명·전남 4명), 경찰은 그러나 300여 명의 운전자 명단을 확보, 신원을 확인 중이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호남지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경유차 소비가 늘고 있는데, 값도 1천400원대에 이르면서 유사 경유나 품질이 떨어지는 경유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성폭력 가해자 처벌 촉구 ‘삼보일배’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회원 20여 명이 14일 광주시청~서구청까지 삼보일배(三步一拜)를 하며 “성폭력 가해자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1심 공판을 앞두고 광주지방법원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원침 (7358) 김중두



다들 물어봐 신협이 KCC
DS건설(주) KCC청도, 연도, 동대, 대덕
KCC광호, 시스텔광호 생산·시공
 ▶ 010-5529-14-3002 ▶ 010-5529-3003
(주)본드나리 KCC신림, KCC대림, KCC대림
실리콘·방수제·점착제·타이프
 ▶ 010-5529-14-3002 ▶ 010-5529-3003

■ 차에 물 섞인 휘발유·경유 넣으면?

차체 심한 진동...엔진 멈춰

물이 섞인 휘발유와 경유를 차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휘발유는 1만ℓ 당 1ℓ (0.01%) ▲경유는 1만ℓ 당 2ℓ (0.02%)의 물이 혼합될 경우 품질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물이 섞인 휘발유와 경유를 차에 주유하면 연료 공급 라인에 문제가 발생, 연료공급이 차단돼 연소가 안 된다. 고성능 디젤엔진인 VGT(가변 터보차저)와 CRDI(커먼레일직접분사)는 엔진 효율이 높아 물에 더 민감하다.

아반떼는 휘발유 40ℓ를 주유시 물이 0.004ℓ 이상 들어가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100m만 달려도 차가 멈춘다. 무소는 경유 40ℓ 주유시 물은 0.008ℓ 이상 넣으면 차체가 흔들리면서 멈춘다.

유사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면 자동차는 출력력이 약 5%가 저하되고 연비가 18% 정도 감소한다.

연료계통 부품(알루미늄)을 부식시키고 엔진수명을 단축한다. 고무제일을 변형시키고 낮은 인화점으로 인해 주유시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크다. 차가 고장 나도 AS를 받을 수 없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학예회 연습 뒤 복통 사망

초등생 사인 공방

유족들 “폭행 출혈”

학교 “간 중앙 때문”

학예회 연습 뒤 복통을 호소하다 숨진 초등학생의 사인을 놓고 학부모와 학교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4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40분께 해남읍 S초등학교 5학년 정모(10)군이 리코더(recorder) 연습이 끝난 후 갑자기 쓰러져 전남대학병원으로 후송했지만 5시간 만에 ‘혈복증(血腹症)’으로 숨을 거뒀다.

정군 등이 학교 기약반 소속 학생 120여 명은 13일로 예정된 학교 학예회 발표를 앞두고 한 달 전부터 방과 후에 연습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군의 유족들은 ‘폭행으로 인한 출혈’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부검을 의뢰했다.

학교 관계자는 “정군이 간장에 생긴 중앙으로 인해 평소 몸이 좋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이 중앙이 터지면서 숨진 것 같다”며 “구타 등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혈복증(血腹症)=복막을 둘러싸고 있는 빈 공간인 복강(腹腔)에 피가 고이는 증세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학예회 지도교사와 친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공채 투자” 5억 사기범 구속

광주 남부경찰은 14일 철도 공채 등에 투자해 주겠다고 84회에 걸쳐 수억여원을 가로챈 건설업자 이모(4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천모(66·광주시 남구 진월동)씨에게 “정부가 관이나 홈쇼핑에 투자, 높은 이익을 내주도록 하겠다”고 속여 4억9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산부인과 의사 환각상태서

210여차례 임신중절 수술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해수 부장검사)는 14일 환각작용을 일으켜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진통제와 마취제 등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산부인과 의사 S(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올해 초부터 9월 초까지 병원에서 보관중이던 진정제 디아제팜·펜티메트라진과 마취제인 치오펜탈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다.

S씨는 또 2004년부터 올해 9월 3일까지 5천800여 차례에 걸쳐

히로뽀보다 2배나 환각 작용이 강한 진통제 날부린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투약하도록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S씨는 마약류를 투약했던 기간에 210여 차례의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했으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9월 4일에도 환각 상태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9월 S씨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

여교사 성관계 장면 촬영해 돈 요구



○경기도 안산 단원경찰은 14일 초등학교 여교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학교에 배포하겠다고 협박,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최모(34)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이모(45)씨 등 2명을 추적.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중순 달아난 이씨가 인터넷동호회에서 만난 초등교사 A(여·49)씨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6천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학교에 비디오테이프를 배포하겠다’며 8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한 혐의.

○조사결과 최씨는 ‘돈 한번 벌어 봅시다’라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 이씨 등 공범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해 A씨 협박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개설한 최씨를 검거한 뒤 이들의 범행을 확인.

/연합뉴스

5월 **아스트릭스 국민보건 캠페인**

노년층의 혈전 예방

혈전, 혈관의 적!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스트릭스